

‘BUY-광주·전남 운동’

지역 우수중소기업제품을 애용합니다

기능성 화장품 효능 뛰어난 여성벤처기업

(주)테라이엔씨

광주 사이언스밸리(첨단산단) 내 조선대 첨단산학협력관에 자리한 (주)테라이엔씨(대표 이정남)는 기능성 화장품을 생산하는 여성벤처기업이다.

2006년 설립된 테라이엔씨는 피부노화 예방 스킨케어 제품인 플라겐 플루이드(Re Cell I)·비타민 플루이드(Re Cell II)·S.P.F30(썬크림)·스페이스 밤(BB크림), 클린징 젤 등을 생산·유통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식물성 허브 성분을 주원료로 해 자극이 적고, 아토피 피부염 및 레이저 필링 후 재생, 여드름 피부 등에 효과적이다.

리셀 I 과 리셀 II는 기존 화장 단계를 간소화해 사용이 간편하고 성별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사 제품과 차별화했다.

리셀 I은 순식물성 플라겐으로 주름 및 미백에 도움을 주고 수분강화 성분으로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리셀 II는 바이오세라믹과 카이 추출물, 각종 비타민이 함유된 천연 바이오세라믹을 첨가해 지친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 홍삼 추출물이 함유된 테라리움 윈스팀 세럼은 주름개선 효과가 뛰어나다.

특히 리셀 I 과 리셀 II, 스페셜 밤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 안전성 승인을 받았다.



테라이엔씨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수출기업화 사업,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대만 등에 수출하고 있다.

또 광주신세계백화점 우수중소기업 제품·고객 우수제품으로 선정되는 등 인기가 높다. 무안공항 면세점·롯데마트 점점점, 회사 홈페이지(www.teraenc.com) 등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美in’ 등 특허 3건, 상표등록 2건, 특허출원 1건을 보유하고 있다. 062-226-1255.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아토피 피부에 효과 만점 천연비누 생산

비단향꽃무

“10년 전, 셋째 딸 아이가 아토피를 심하게 앓았습니다. 병원에 다녀와도 그 때뿐, 아토피는 좀처럼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취미 삼아 배운 천연비누를 아이에게 써봤죠. 신기하게도 아토피가 진정됐어요. 작아지는 비누 크기만큼 아이의 상처도 아물었습니다.”

안현정 대표가 ‘비단향꽃무’를 창업한 계기다. 안 대표는 지난 2005년 광주시 서구 중앙동에 공방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었다. 팜유나 코코넛유, 올리브유, 포도씨유, 호호바유 등 식물성 오일과 천연 라벤더, 티트리 등 고급 아로마오일을 첨가해 천연비누를 만들었다.

비단향꽃무의 천연비누는 고급 식물성 오일과 천연 아로마오일, 한방추출물 등을 첨가해 만든 고급 수제 비누다. 가려운 피부나 아토피 피부에 효과적인 허브보습비누와 한방 여드름 비누 등이 있다. 이들 제품은 여성초·삼백초·대나무 숲 등 7가지 한방재료를 첨가해 지성 여드름 피부에 좋다. 원적외선 음이온 향균성이 뛰어난 기능성 신물질 GEM3000(God's Energy Mud)과 플라겐도 첨가했다.

비단향꽃무는 천연비누에 이어 천연샴푸도 출시했다. 100% 고급 식물성 오일과 피부에 좋은 아로마오일·생체활성물질



첨가해 탈모·비듬·두피 가려움에 효과적이다.

이들 제품은 인체에 해로운 보존제를 넣지 않은 식물성 기름을 사용해 전국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남구 방림동 회사 내 매장과 홈페이지(gemsoap.co.kr), G마켓·옥션·롯데이몰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다. 중국·일본 등 해외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비단향꽃무는 ISO9001 인증을 취득해 품질 향상에 전력을 하고 있다. 062-682-7384.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수입물가 작년보다 8.1% 상승...5개월래 최대

수입물가의 작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수입물가 상승률이 8.1%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의 11.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다만 환율 하락이 상승 폭을 상당 부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은 9월 달러당 1,167.0원에서 지난달 1,123.5원으로 하락했다.

수입 계약을 맺은 계약통화 기준으로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2.4% 상승했지만, 원화를 기준으로 따지면 오히려 전월 대비 0.9% 하락했다.

수입물가 상승은 원유, 곡물, 비철금속 등 원자재가 주도했다.

원자재 수입물가의 작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15.0%였다. 농림수산물 24.2%, 광산품 13.9%씩 상승했다.

중간재도 6.3% 올랐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2.6%와 0.1%씩 내렸다.

수출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1.0%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전월 대비로는 1.7% 하락했다. /연합뉴스

신용카드 연체율 1.84% 역대 최저

30%대 연체 이자율은 ‘고공행진’

신용카드 연체율이 역대 최저를 보이고 있어 최고 30%의 연체 이자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신한카드 등 6개 집업 카드사의 연체율은 1.8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연체율은 2004년 말 18.25%에서 2005년 말 10.06%, 2006년 말 5.53%, 2007년 말 3.79%, 2008년 말 3.43%, 2009년 말 2.23%에 이어 올해 6월 2% 이하로 떨어졌다.

현대카드 6월 말 연체율이 0.77%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은행권 카드사도 연체율이 1.53%로 지난해 말(1.50%)보다는 소폭 상승했으나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연체율이 크게 떨어진 것은 신규 연체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부실채권 처분·상각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우량 고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연

체율이 떨어진 것에 비해 최고 30% 수준의 연체 이자율은 요지부동이다.

전업 카드사의 경우 신한카드가 연 25~29.9%의 연체 이자를 받는 것을 비롯해 삼성카드 24.9~29.9%, 현대카드 25~29.9%, 롯데카드 25~29%, 하나SK카드 25~28%, 비씨카드 25% 등이다. 은행계 카드사도 국민은행 24.5~29.9%, 우리은행 23~28%, 외환은행 23~29%, 기업은행 25~28%, 농협 25%, 수협 27%, SC제일은행 20~30%, 씨티은행 22.9~29.9% 등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저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하는 상황에서 카드사에 빚을 잘 갚는 고객도 많아지는 만큼 연체에 대한 이자 부담도 다소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주간 증시 포커스

외국인 매매 주목...저가매수 기회로

11일 옵션 만기일 외국인 매도에 따른 후폭풍이 일파만파(一波萬波)다. 대규모 외국인 매도 이후 시장에는 온갖 억측까지 난무하면서 투자심리를 옥죄는 양상이다.

자본 규제설이나 아일랜드 약제가 지수 하락의 실마리라는 견해도 등장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8000억 이상 주식 매수에 나섰다는 점에서 실력은 떨어진 듯 보인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공세가 하루 만에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연속성을 지니지 않았다는 점은 전반적인 외국인 시장 변화 우려를 줄여 주었다.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받은 상처는 컸는데, 12일 지수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에도 반등에 실패했다는 점과 유럽 약제나 미국과 중국 증시의 조정까지 겹친 것이 원인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 대한 경계심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번 주에도 투자자들이 장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민감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수 변동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선 국내 수출의 버팀목이 되어온 중국이 간혹에 대한 우려로 조정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최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

수에 대한 우려로 두 번째 금리 인상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며, 금리 인상 폭도 100bp에 이를 정도로 급격한 긴축이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수를 조정으로 내몰고 있다.

G20정상회의에서는 시장 결정적 환경을 제도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다소 실망의 목소리도 들리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을 비판했던 독일 등이 수긍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합의에도 미국의 양적 완화라는 명제는 변함없으며, 달러가 풀리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급격한 원화 절상을 염두에 둔 투기 세력 입장에서 이번 G20서울 선언문이 단기 차익실현의 발미가 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외국인 매매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추세를 바꿀 변수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10월 이후 국내에 진입한 외국인 특정 종목이나 업종 중심으로 매수에 나섰다는 점은 갈수록 환율보다는 실적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주 주식시장은 성장기 관점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들과 단기적으로 그간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혼재하면서 결과적으로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결국 주초에는 해외변수 불안을 따른 지수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약제를 받고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최근 불거지는 약제가 이미 인지된 약제인데다 이를 알고도 지난 주 후반 외국인인 국내 시장에 대한 주식 비중을 늘렸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저금리 상황에서 지수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 매수세가 많다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외변수에 대한 과도한 비관을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제반 변수에 따른 외국인 매매에 우선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1. 시공전 / 단열메이스트시공
2. 단열메이스트시공 / 트라이슈머시공
3. 트라이슈머 시공
4. 옥상시공 후

특허방수

하사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시트방수

2중단열방수, 절연방식시공, 내구성탁월, 전천후시공성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냉방비를 절감

1. 여름철에는 전기료 절감 30~40%
2.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 15~20%
3. 옥상정원을 조성했을 때와 같은 단열효과를 냅니다.

태양열차단 50% 이상, 방기차단 90% 이상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절감, 난방비 15~20% 절감

본사 전속모델
탈런트 이영후

옥상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062) 511-0444
대리점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명품시계 전남/북 총판

A/S는 유명백화점 갤러리어클락 매장과 공유됩니다.

갤러리어클락 광주점
TEL. 062 233 2251
광주 동구 충장로2가 25-1번지 (한성회관 후문 다이소 옆)

* 본 매장은 정품만을 취급합니다.
* 명품시계 취급점 모집

GALLERY O'CLOCK

CITIZEN

TechnoMarine

FENDI

TIMEX

Salvatore Ferragamo

BOSS

Paul Smith WATCH

CELINE

COACH

NIXON

AIGNER

D&G